

5차시. 부드러운 개입의 방법론, 해카톤 사례

학습 내용

1. 창의적인 조직문화와 혁신
2. 아이디어 개발팀 – 해카톤
3. 해카톤 프로세스와 실행 사례

1. 창의적인 조직문화와 혁신

대기업의 조직구조는 피라미드 형태로 제품생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창의적인 기업문화에는 맞지 않는다.

아이디어 회의의 문제점

- 사람이 많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.
- 개념 없이 모이면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.
- 쥐여 짜는 아이디어 회의는 고문이다.
- 주로 문제 발생시 공동 책임 분배 형태로 이루어진다.

아이디어 회의의 문제점 보완 방법-브레인스토밍

- 장점: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토의, 풍성한 아이디어 도출
- 단점: 탁월한 아이디어를 찾기 힘들,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행하지 않음.
도출된 아이디어에서도 실행 여부 가능한 아이디어를 선택해야 함.
실행하기 위해 또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함, 브레인스토밍 블랙홀에 빠질 수 있음

혁신은 아이디어 탄생뿐만 아니라 선택, 조직으로 확산, 사업화 및 수익 창출까지 이어져야 완성되는 마라톤이다.(인사이드 경영대학원, 한센 교수)

2. 아이디어 개발팀 - 헥카톤

마라톤적인 혁신을 위한 고려사항

- 아이디어 도출부터 종결까지 프로세스를 얼마나 단축할 수 있나?
- 이러한 팀들을 몇 개나 운영할 수 있나?

헥카톤은 좋은 아이디어(컨셉)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인 실행팀을 구성하여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공유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서 데모버전 개발하는 과정으로 아이디어 발상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한 팀에서 진행한다.

헥카톤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성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힌트를 얻어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.

Let's Hackathon

-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
- 개발아이디어 워크숍
-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마라톤처럼 끝까지 가는 워크숍

헥카톤 문화

- Facebook에서는 헥카톤 모임으로 신제품과 Biz model개발을 하고 있다.
-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헥카톤에 참가하여 Facebook의 기업문화가 되어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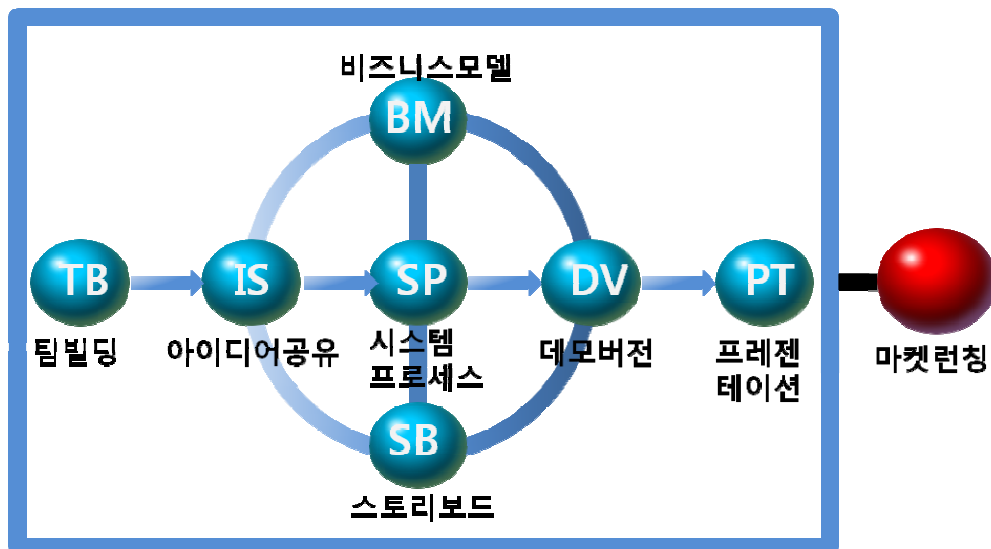
- 뉴스피드, F8등 주요제품이 해카톤으로 개발

해카톤은 넷지의 방식과 동일하여 넷지톤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. 넷지톤은 넷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라톤처럼 하여 마무리를 내는 형태의 회의 및 워크샵 방법이다.

해카톤의 “HACKA” 원리

- Hidden needs (숨어있는 니즈를 찾아라)
- Associational think (연관사고를 하라)
- Cracking code (고정관념을 깨라)
- Killer concept (죽이는 컨셉을 설정하라)
- Action now (바로 실행하라)

Let's Hackathon



3. 해카톤 프로세스와 실행 사례

Let's Hackathon의 실행 프로세스

1) 아이디어 발상 단계

-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.
- 성공한 아이디어의 원리를 해킹하여 응용한다.

2) 아이디어 공유

- 기획, 디자인, 기술로 구성된 실행팀을 짠다.
- 기능의 벽을 허물고 아이디어를 구성한다.
- 지식과 정보를 융합한다.

3) 시스템 설계

-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기술요소와 운영시스템을 설계한다.

- 개방된 API를 매쉬업 (Mashup)한다.

4) 스토리보드

- 고객관점에서 유용하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든다.
- · 사용할 때의 상황을 스토리보드에 반영한다.

5) 비즈니스 모델

- 어느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를 정의한다.
- 언제, 어떻게 매출과 수익을 올릴 것인가를 계획한다.

6) 데모버전

- 제품이나 서비스의 모형(Prototype)을 만든다.
- 빠른 시간내에 데모버전을 만들어 본다.

7) 프레젠테이션

- 데모버전을 만들어서 의사결정그룹에 PT한다.
- 여러팀에 경쟁PT 하기도 한다.
- Go/Not을 결정한다.

8) 마켓런칭

- 아이디어 발상, 기술개발, 상품화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한다.
-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곧바로 시장에 런칭한다.